

아티스틱허브, 청년창업가·예술가 포트폴리오 영상 제작지원 서비스 실시

✎ 김가람 기자 | Ⓞ 승인 2024.10.24 15:05

-서종현 대표 “창의적·효과적 디지털 마케팅 전략 구축 등 서비스 고도화 집중”



사진=아티스틱허브

한국금융경제신문=김가람 기자 | 미디어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아티스틱허브가 청년창업가 및 예술가들을 위해 영상기술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제작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설립된 아티스틱허브는 서울특별시청 소관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날개숲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서종현 대표가 설립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이다. 서종현 대표는 현재 청년영화 활성화 및 미래 영화 산업을 주도할 영화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은평청년영화제’의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

아티스틱허브는 청년창업가·예술가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비롯해 작품 및 창업 아이디어와 관련한 마케팅 역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제작 및 유통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관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고 및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비롯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제작투자 유치용 시놉시스 영상화 지원, 1인 미디어 제작지원 서비스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핵심 고객층인 청년창업가·예술가들의 Bedrock Need와 Pain Point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아티스틱허브 서종현 대표는 “아티스틱허브는 청년창업가·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작품과 창업 아이디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는 청년창업가·예술가들이 뉴파워를 갖출 수 있는 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티스틱허브는 마케팅 활동의 결과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가람 기자 kkram377@kfenews.co.kr